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능력에 관한 연구

한 윤 옥*

<차 례>

- | | |
|--------------------|------------------|
| I. 서 론 | Ⅲ. 자료의 수집 및 결과분석 |
| Ⅱ. 도서관이용교육의 내용과 실태 | Ⅳ. 결 론 |

I. 서 론

우리나라에 현대적 개념에 입각한 학교도서관이 대두한것은 1950년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할것이다. 즉 1952년 3월에 이루어진 진주여자고등학교의 반개가제 도서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학교도서관으로 본다.¹⁾ 그 이후 학교도서관은 점차적으로 늘어났으며 1963년에 법률 제 1424호로서 공포된 도서관법에서 학교도서관 설치에 관한 항목²⁾을 둔 이래 더욱 증가하였다. 1977년의 통계³⁾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3954개의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사서교사

- 1) 김두홍, "학교도서관편", 전국도서관 실태조사(하)-학교도서관편, 특수도서관편, 도서관학 교육편(서울:한국도서관협회, 1971), p. 25
- 2) 도서관법 제25조 제 1항
- 3) 1977년 한국도서관 통계, p. 12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율도 높아 공공도서관의 전체 이용자중 약 91.5%⁴⁾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1952년 이후 근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양적으로 학교도서관이 늘어가고 이용자도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도서관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면에서 볼때에는 양적인 증가에 못 미치고 있는것 같다. 즉 많은 입관자중에서 실제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숫자는 극히 적어 전체 입관자의 약 12분의 1⁵⁾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 부족을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실제로 한 조사⁶⁾에 의하면 도서관의 자료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도서관 및 자료이용법을 모른다’에 19.17%, ‘어느책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에 20.81%의 학생들이 응답하여 결국 약 40%의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법을 모르므로서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무리 좋은 자료와 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좋은 자료와 봉사「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장될것이다. 더욱 현대는 지식의 폭발 시대로 지칭되는 만큼 일단 흡수된 지식의 내용도 끊임없이 수정하고 갱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활용없이는 곤란한 일로서 더욱 도서관 이용교육은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의 이용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어 대학 교양과목으로서 도서관 이용법을 수강하도록 하자는 의견⁷⁾도 나오고 있고 실제 실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⁸⁾ 그러나 필자는 대학과정에서

4) “서울특별시립 종로 도서관” 도협월보, (1970. 9) p. 285

5) 「독서신문」, 1977. 8. 7. p. 7

6) 나성실, 대학 교양과정에 있어서 도서관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2) pp. 54-55

7) 김신숙원, “도서관과 문헌이용지도-대학 정규과목으로서의 필요성”, 도협월보 18, 1 (1977. 1·2) p. 15. ⁸⁾ 나성실, op. cit.

8) 정태숙, “대학 도서관 이용지도의 방법”, 한국비블리아, 제 3집 (1978) p. 1 (서강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실시)

도서관 이용법을 수강하도록 하는것은 시기적으로 늦다고 생각한다. 즉 대학은 이미 필요한 기초교육을 마치고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전공분야를 결정하고 진학하는 곳으로서 교수의 전수내용 이외에도 스스로 많은 자료를 찾아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精緻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⁹⁾ 하는 곳으로 도서관의 이용이 필수불가결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때 이미 이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본인이 학교도서관에 수년간 봉직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이러한 교육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 앞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이용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것은 교육대상자들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것이다. 이에 필자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이해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조사하여 보기로 한것이다. 이 조사목적은 이루기 위하여

- 1) 분류번호에 대한 이해능력
- 2) 목록카드에 대한 이해능력
- 3) 참고도서에 대한 이해능력
- 4) 책의 구성에 대한 이해능력
- 5) 참고문헌, 인용문의 주기법에 대한 이해능력을 조사하고 도서관 이용교육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방법은 별지와 같은 질문지를 통하여 했고 질문지의 항목들은 「맥밀란 잉글리쉬 시리즈」에서 취급한 도서관 이용법 연습문제¹⁰⁾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조사범위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해야할것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서울시내의 고등학교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우리나라의 이용교육에 관한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것이 기대된다.

9) 교육법 제108조

10) The Macmillan English Series 6, 2nd e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3) pp. 165~174

II. 도서관 이용교육의 내용과 실태

도서관 이용교육의 목적은 조직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와 도서관 업무를 적절하게 이용시키는데에 있다.¹¹⁾

김동국¹²⁾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알맞는 도서관 이용지도 자료를 개발하여 도서 및 도서관 이용법을 습득시키면 학습 성취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을 마련하였다.

1) 책이나 그밖의 자료를 찾는 법

- ① 한국 십진 분류법
- ② 청구번호에 관한 것
- ③ 도서의 서가 배열법
- ④ 목록카드의 이용법

2) 참고도서를 이용하는 방법

- ① 참고도서의 종류
- ② 사전 이용법
- ③ 목차와 색인의 활용법

3) 조사연구한것을 정리하는 방법

- ① 서목의 작성
- ② 학습장 정리
- ③ 보고서 작성

김동국은 이 실험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훨씬 학습 성취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신숙원¹³⁾은 “도서관과 문헌이용법”을 대학의 정규과목으로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교과내용을

1. 카아드 목록 사용법

11) 신숙원, op. cit., p. 16

12) 김동국, “도서관 이용지도 자료의 개발과 활용이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 국민 학교 고학년용 중심으로 -” 도협월보 17. 3 (1976. 4) pp. 23~27

13) 신숙원, op. cit., pp. 16~19

2. 참고도서의 종류와 사용법

3. 자료수집과 논문작성법

4. 도서관 업무에 관한 소개의 4 가지로 크게 나누었다. 카아드목록 사용법에서는 십진분류법과 저자명, 서명, 주제명 카드에 관한것뿐 아니라 카드배열의 규칙, 서양인명에 관한 유의점등을 설명하도록 하였고 참고도서의 종류와 사용법에서는 실제 참고도서를 찾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어 참고도서 찾는 훈련을 시킨다. 자료수집과 논문작성법에서는 서지, 색인 등을 사용하여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각주달기, 참고서지 기입법, 원고쓰는 법까지 지도하고 도서관업무에 관한 소개에서는 지정도서 제도, 개인 예약 제도, 상호대차 제도, 한국 과학기술 정보센터의 「서비스」 등을 소개하여 준다.

유소영은 교육의 대상자들이 외국인 이기는 하지만 서울국제학교 도서관에서의 이용교육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¹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도서관이용의 기본자세와 예의, 3~4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저자명, 서명, 주제명카드에 대한 개념을 주입시켜 주고 5~6학년 학생들에게는 듀이 십진분류법의 내용과 열람카드의 이용법, 색인에 관한 지식등을 가르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을 이용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 참고도서와 인용문 주기법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나성실은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학생들이 현재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안내책자 배부등의 교육방법으로는 도서관 이용에 있어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밝혀내고 도서관 이용교육을 대학의 정규과정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⁵⁾

정태숙은 도서관 이용교육에 있어서 그 지도의 방법면에 중점을 두어 1961년 이후의 서양문헌을 조사하므로써 몇가지 지도방법을 제시하였다.¹⁶⁾

14. 유소영, "서울국제학교도서관" 도협월보 19. 2 (1978. 3), pp. 20~21

15) 나성실, *op. cit.*

16) 정태숙, *op. cit.*

아외에도 대학도서관의 이용과 관련된 안영주의 논문이 있으며¹⁷⁾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도서관 이용교육 실태는 한 조사에 따르면 10.2%¹⁸⁾에 불과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에서의 도서관 이용교육의 실태는 실시단계를 넘어서 평가단계에 들어선것으로 보인다. 즉 낸시는 그의 논문에서 많은 사서들이 이용자 교육을 인식하고 평가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실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¹⁹⁾ 미국에서 도서관의 이용자에 관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였으며²⁰⁾ 이용자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 역시 미국에서 개발되었다.²¹⁾

가장 널리 이용된 테스트는 1974년 블룸필드에 의하여 작성된 “Testing for Library Use Competence” 라고 하며 쇼어스와 무어의 “Peabody Library Information Test”, 에텔휘글리등의 합작인 “Feagley Library Orientation Test for College Freshmen” 도 많이 이용된다고 하였다.²²⁾

Ⅲ.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수 집

본 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임의로 선정된 서울 시내의 7개 고등학교에 부록 1의 내용과 같은 질문지 450매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였다. 회수된 응답지는 모두 417매 였고 이중에서 남학생 응답지 180매와 여학생 응답지 180매를 결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분 석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17) 안영주, 한국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의 효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5).

18) 김두홍, op. cit., p. 73

19) Nancy Fjällbrant, “Evaluation in a User Education Programme” *Journal of Librarianship*, 9 (2) (April, 1977) p. 88

20) Lowell A. Martin “User Studies and Library Planning” *Library Trends*, (Jan. 1976) p. 483

21) Nancy Fjällbrant, op. cit., p. 89

22) *ibid.*

보았다.

가) 분류번호에 관한 이해능력

고등학교 학생들의 분류번호에 관한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1」항에서 십진분류법에 대하여 들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 가-1〉

질문	구분		비율 (%)	여학생	비율 (%)	계	비율 (%)
	응답	남학생					
학생은 전에 십진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었다	57	31.67	95	52.78	152	42.22
	못들었다	123	68.33	85	47.22	208	57.78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표 가-2〉

질문	구분		비율 (%)	여학생	비율 (%)	계	비율 (%)
	응답	남학생					
학생은 전에 십진분류번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다	9	5.00	8	4.44	17	4.72
	대강 알고 있다	39	21.67	65	36.11	104	28.88
	전혀 모른다	132	73.33	107	59.45	239	66.40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표가-1」은 십진분류법에 대하여 들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이다. 여기서 보면 십진분류법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는 학생은 152명으로 전체의 42.2%, 못들었다는 학생은 208명으로 전체의 57.8%에 이르고 있다. 또 이것을 男, 女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123명(68.3%)이 십진분류법에 대하여 들어본 일도 없는데 비하여 여학생은 85명(47.2%)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나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십진분류법에 관하여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의미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가-2」에서 보는바와 같이 더욱 나쁘다. 즉 남학생은

9명, 여학생은 8명만이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강 알고있다는 응답을 알고 있는것으로 간주하여도 121명(전체의 약 34%)만이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분류번호의 의미를 알고있다. 성별 분포상황은 남학생이 48명으로 27%, 여학생이 73명으로 41%에 가까운 학생들이 알고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가-3」항은 분류번호의 활용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조사로 결과는「표가-3」과 같이 나타났다.

〈표가-3〉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비율(%)	비율(%)				
학생은 전에 공공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무작정 서가에 있는 책을 보고 다녔다.	42	23.33	70	38.89	112	31.11
		분류번호를 대강 알고 그 번호에 의해	20	11.11	34	18.89	54	15.00
		막연히 목록 카드를 보았다.	88	48.89	35	19.44	123	34.17
		사서의 도움을 받았다.	27	15.00	36	20.00	63	17.50
		무응답	3	1.67	5	2.78	8	2.22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여기에서 보면 남학생이 20명(11%), 여학생이 34명(19%)으로 전체 54명만이 분류법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직접 자료를 찾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2」항에서 분류번호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학생들(男:48명, 女:73명)의 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또 사서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 학생들은 도서관의 시설과 업무를 조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작정 서가에 꽂혀있는 책을 찾아 보거나 막연히 목록카드를 뒤적여 보는 무모한 학생들이 235명이나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가-4」항과 「가-5」항은 분류번호에 관한 실제적 「테스트」로 「가-4」항은 십진분류법에서 첫째 분류단계인 主類구분의 이해능력을 알아본 것이고, 「가-5」항은더 세분화된 분류단계인 要目구분의 이해능력 조사이다. 선다형 문제이므로 우연히 올바른 응답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르겠다'는 항을 첨가하였다. 결과는 「표 가-4」와 「표 가-5」와 같이 나타났다.

〈표 가-4〉

질문 \ 구분	응답	남학생	비율 (%)	여학생	비율 (%)	계	비율 (%)
만약 종교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어떤 번호대의 것을 찾겠습니까?	200 대	9	5.00	4	2.22	13	3.61
	300 대 400 대 500 대	22	12.22	8	4.44	30	8.33
	모름	149	82.78	167	92.78	316	87.78
	무응답	0	0	1	0.56	1	0.28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표 가-5〉

질문 \ 구분	응답	남학생	비율 (%)	여학생	비율 (%)	계	비율 (%)
만약 이광수씨의 소설을 읽고 싶으면 어느 번호대의 것을 찾겠습니까?	813 대	7	3.89	6	3.33	13	3.61
	811 대 812 대 814 대	21	11.67	16	8.89	37	10.28
	모름	152	84.44	157	87.22	309	85.83
	무응답	0	0	1	0.56	1	0.28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표 가-4」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십진분류번호에 관하여 거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에 관한 자료를 찾고 싶을때 보아야 할 200대를 바로 알고있는 학생은 남학생 9명, 여학생 4명으로 전체 13명이었다. 이것은 겨우 전체의 3.6%에 지나지 않는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분류번호에 관하여 대강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많았던것에 비하여(男:48명, 女:73명) 실제 분류번호를 알고 올바르게 응답한 숫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세분화된 분류단계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가-5」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학생의 경우 「가-5」항이 「가-4」항보다 더 전문화된 지식을 요하는 항목인데도 올바르게 알고 있는 학생이 더 많았다는 역현상은 평소 문학류의 도서를 즐겨 읽기때문에 잘 알게된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무튼 위의 조사에서 전혀 분류번호를 모르는 학생이 86%~88%나 된다는것은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가-6」항은 학생들이 십진분류법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정도를 조사한것이다.

〈표 가-6〉

질문	구분	응답		비율		비율		
		응답	남학생	비율 (%)	여학생	비율 (%)	계	비율 (%)
학생은 십진 분류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다		111	61.67	128	71.11	239	66.39
	그저 그렇다		49	27.22	46	25.56	95	26.39
	모르는 대로 있겠다		20	11.11	6	3.33	26	7.22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표 가-6」에서 보면 십진분류법에 대하여 알고싶다는 반응은 남학생이 111명으로 약 62%, 여학생이 128명으로 71%이다. 「가-2」항에서 분류번호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남학생은 132명이었는데 알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그보다 적은 111명이며 모르는대로 있겠다는 무관심한 학생

도 20명이나 되어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의 관심도가 적은것 같다. 앞으로 도서관측은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분류법에 관하여 알고싶어 한다는것을 고려하여 모든 봉사「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할것으로 본다.

나) 목록카드에 관한 이해능력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때 도움을 주는 색인의 역할을 하는 목록카드는 어느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것이다. 설문 「나-1」항과 나-2」항에서는 이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해능력이 어느정도 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목록카드에 관하여 듣고, 본 그들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표 나-1〉

구분 질문	응답	남학생	비율 (%)	여학생	비율 (%)	계	비율 (%)
학생은 목록카드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었다	169	93.89	170	94.44	339	94.17
	못들었다	11	6.11	10	5.56	21	5.83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표 나-2〉

구분 질문	응답	남학생	비율 (%)	여학생	비율 (%)	계	비율 (%)
학생은 목록카드를 본일이 있습니까?	보았다	152	84.44	145	80.56	297	82.50
	못보았다	27	15.00	35	19.44	62	17.22
	무응답	1	0.56	0	0	1	0.28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목록카드에 관하여 들은 경험은 「표나-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이 169명, 여학생이 170명으로 전체 94%에 이르는 많은 수의 학생이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록카드를 본 것은 그보다 약간 적어 남

학생이 152명, 여학생이 145 명으로 전체 83%의 학생들이 목록카드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목록카드 는 어느 도서관에나 비치되어 있는것으로 목록카드를 본 일이 없다는 학생 이 62명(전체의 17%)이나 된다는것은 의외의 일 일로서 도서관을 수험공부 하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일반적 경향의 여과가 아닐까 짐작된다.

「나-3」항에서는 자료를 찾을때 목록카드를 실제 이용해 본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것으로 목록카드의 활용도를 알기 위한 것이다. 결과는 「표 나-3」과 같이 나타났다.

〈표 나-3〉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응답	비율 (%)	응답	비율 (%)	응답	비율 (%)	응답	비율 (%)
학생은 목록카드에 의하여 책을 찾아 본 일이 있습니까?	있다	89	49.44	60	33.33	149	41.39		
	없다	90	50.00	119	66.11	209	58.05		
	무응답	1	0.56	1	0.56	2	0.56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여기서 보면 목록카드를 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이 비교적 많았던것에 비하여 목록카드를 활용하여 책을 찾아본 학생들은 훨씬 적었다는것을 알 수 있다. 즉 「나-2」항에서 297명의 학생들이 목록카드를 보았는데 실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학생은 50%에 해당되는 149명뿐이었다. 또 남녀별로 보면 목록카드를 본 경험이 있는 남학생 152명의 59% (89명)가 실제 목록카드를 활용한것에 비하여 여학생은 41%의 학생만이 그렇게 하였다는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격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점이 아닐까 하고 추측되어지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를 들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목록카드가 이용자의 절반이 넘는 58% (209명)나 되는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것은 반드시 원인을 알아내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할것으로 본다.

다음 문항「나-4」는 학생들이 목록카드를 찾을때의 실제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는 「표 나-4」와 같이 나타났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르겠다는 답을 첨가하였다.

〈표 나-4〉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학생은 다음의 책을 찾을 때 어느 부분에서 찾겠습니까?		「O-츠」	60	33.33	45	25.00	105	29.17
		「ㄱ-ㄷ」 「ㄴ-ㅂ」 「ㅋ-ㅍ」	20	11.11	13	7.22	33	9.17
		모름	99	55.00	116	64.45	215	59.72
		무응답	1	0.56	6	3.33	7	1.94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위의 표에서 보면 가장 간단한 저자명 목록을 찾는 방법을 바르게 알고 있는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60명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그보다도 적은 45명으로 전체 105명이다.

문항「나-3」에서 목록카드에 의하여 책을 찾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9명(男: 89명, 女: 60명)이었는데 바르게 찾을 수 있었던 학생은 105명 뿐이다. 나머지 44명은 찾아보았어도 틀린곳에서 찾았으므로 시간과 노력의 손실을 보았을것은 물론이며, 이 수치는 「나-4」항에서의 틀린 응답자와 무응답자를 합한 40명과도 부합되는 숫자이다.

이상 문항「나-1」부터 「나-4」항까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목록카드에 관하여 듣고 본일은 많지만(94%, 83%) 올바르게 이용할 줄 아는 학생은 29%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분류번호보다는 목록카드의 활용에 더 가깝게 접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5」항에서는 목록카드를 알고 싶어 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나-5」와 같이 나타났다.

〈표 나-5〉

구분 문항	응답	남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	계	비율
			(%)		(%)		(%)
학생은 목록카드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까?	알고싶다	115	63.89	129	71.66	244	67.78
	그저그렇다	53	29.44	45	25.00	98	27.22
	모른대로있겠다	11	6.11	3	1.67	14	3.89
	무 답	1	0.56	3	1.67	4	1.11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위에서 보면 목록카드에 관하여 알고 싶다는 학생은 남학생은 115명 (64%) 여학생 129명 (72%) 전체 244명 (68%)이다. 그저그렇다는 중간 반응의 학생들이 전체 98명 (27%)으로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모르는 상태대로 있겠다는 학생이 14명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목록카드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였다.

다) 참고도서에 관한 이해도

고등학교는 대학과정과는 달리 전문화된 지식을 탐구하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색인지, 초록지등을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이 학습할때 흔히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참고도서-각종 언어사전, 연감, 백과사전등-의 이용법은 알아야 할것이다. 여기서서는 그들이 참고도서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찾아보아야 하는 참고도서를 지적하도록 하였다. 각 문제마다 찾아보아야 할 참고도서 이외의 것을 지적한 것은 틀린것으로 간주하였고 우연히 올바른 답을 고르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르겠다'는 항을 보기에 넣었다.

문항「다-1」은 가장 보편적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것이였다. 결과는 「표다-1」과 같다.

〈표 다-1〉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사하라 사막과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을 알려면?	백과사전	72	40	67	37.22	139	38.61	
	그 이외의 참고 도서	93	51.67	77	42.78	170	47.22	
	모름	8	4.44	25	13.89	33	9.17	
	무응답	7	3.89	11	6.11	18	5.00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위의 표에서 보면 가장 흔한 백과사전을 이용할 줄 아는 학생은 불과 139명으로 응답자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백과사전 이외의 참고 도서를 보거나 모르겠다는 학생, 무응답자가 모두 221명으로 이들은 백과사전의 용도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백과사전을 찾아볼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모른다는 것은 주입식 교육방법만이 행하여졌기 때문이 아닌지 교육담당자들은 한번 더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2」항은 도감을 이용할 줄 아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표 다-2〉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강가루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도감, 도록	75	41.66	84	46.67	159	44.17	
	그 이외의 참고 도서	86	47.78	69	38.33	155	43.06	
	모름	12	6.67	23	12.78	35	9.72	
	무응답	7	3.89	4	2.22	11	3.05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표 다-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도감을 이용할 줄 아는 학생은 남학생 75명, 여학생 84명으로 여학생이 약간 나은 상태였다. 도감의 올바른 이용도는 백과사전의 경우보다 조금 좋은 형편이지만 역시 50%에도 미달된다.

다음은 인명사전의 올바른 이용도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다-3」과 같다.

〈표 다-3〉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비율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 대하여 알고싶으면?	인명사전		139	77.22	142	78.89	281	78.06
	그 이외의 참고도서		25	13.89	24	13.33	49	13.61
	모름		12	6.67	13	7.22	25	7.22
	무응답		4	2.22	1	0.56	5	1.11
	계		180	100	180	100	360	100

인명사전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학생은 비교적 많다. 즉 남학생 139명(77%), 여학생 142명(79%)으로 전체 281명(78%)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명사전을 모르는 고등학교 학생이 79명이나 된다는 것도 한심한 상태이다. 인명사전을 찾겠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서양인명의 경우 이름과 성을 도치시켜 성의 알파벳트 순서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이 과연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문항「다-4」는 언어사전을 옳게 이용할 줄 아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언어사전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질문지 응답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렇지 못한 학생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다-4〉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어떤 낱말의 뜻과 유래를 알려면?	언어사전		127	70.56	147	81.67	274	76.11
	그 이외의 참고도서		45	25	29	16.11	74	20.56
	모름		7	13.89	4	2.22	11	3.05
	무응답		1	0.55	0	0	1	0.28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언어사전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학생은 남학생 127명, 여학생 147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나은 상태이다. 우리가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참고도서는 언어사전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낱말의 뜻과 유래를 찾아보는 것조차 잘못하고 있는 비율이 24%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음에는 주제별 사전의 이용법을 알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문항「다-5」에서는 주제별 사전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쉽고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문학사전의 이용도를 조사하였다.

〈표 다-5〉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자유에서의 도피는 누가 언제 어디서 쓴 것인지를 알려면?	문학사전		110	61.11	109	60.56	219	60.84
	그 이외의 참고도서		52	28.89	45	25.00	97	26.94
	모름		14	7.78	22	12.22	36	10.00
	무응답		4	2.22	4	2.22	8	2.22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여기에서 보면 문학사전을 찾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110명, 여학생 109명으로 남, 여학생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머지 141명(약 40%)이 주제별 참고사전의 용도를 모르고 있다.

문항「다-6」에서는 연감의 이용법을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지난해의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상황을 알려면 연감을 보는것이 좋겠지지만 질문자가 보기 항목에 통계표를 넣었으므로 통계표를 보겠다고 응답한 것도 맞는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다-6」과 같다.

〈표 다-6〉

질문	구분	응답		비율		계	비율
		남학생	여학생	(%)	(%)		
지난해의 우리나라 산업발전 상황을 알 려면?	연 감	20	18	11.11	10.00	38	10.56
	통 계 표	127	120	70.55	66.67	247	68.61
	그 이외의 참고도서	25	26	13.89	14.44	51	14.17
	모 름	5	11	2.78	6.11	16	4.44
	무 응 답	3	5	1.67	2.78	8	2.22
	계	180	180	100.00	100.00	360	1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연감을 보겠다고 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슷한 상태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20명, 여학생 18명으로 전체 38명(약11%)이다. 통계표를 이용하여 해답을 찾겠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27명(약71%), 여학생은 120명(약67%)으로 전체 247명(약69%)이다.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연감 혹은 통계표를 보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것은 기대보다 훨씬 나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기 문항에 통계표가 없었다면 이 문제의 해결상태는 훨씬 저조한 결과로 나타났을것이 예상된다.

다음에는 지명사전의 올바른 이용도를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다-7」과 같다.

〈표 다-7〉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케팅겐이라고하는 도시가 어느 나라에 있으며 면적, 인구, 역사 등을 알려면?		지명사건	128	71.11	134	74.44	262	72.78
		그 이외의 참고도서	37	20.55	29	16.11	66	18.33
		모름	12	6.67	14	7.78	26	7.22
		무응답	3	1.67	3	1.67	6	1.67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명사건을 보겠다는 학생은 남학생이 71%, 여학생이 74%이고 그 이외의 참고도서를 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의 경우 21%, 여학생의 경우 16%이다. 전체적으로는 73%에 가까운 262명이 올바른 응답을 하였다.

다음 문항에서는 백과사전의 배열방법을 물었다. 이것은 백과사전에 접근하여 그것을 찾는 법까지를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나다...순서', 혹은 '주제별 배열'의 의미로 답한 것은 맞는 것으로 하였으며 「모르겠다」는 말조차 쓰지 않는 것은 무응답, 모른다는 말을 명시한 것은 「모르겠다」의 항에 넣어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표다-8」과 같이 나타났다.

〈표 다-8〉

문항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백과사전은 보통 어떤 순서로 정리되어 있는지 아는데로 쓰십시오.		가나다순 주제별	65	36.11	61	33.89	126	35.00
		모름	28	15.56	17	9.44	45	12.50
		무응답	87	48.33	102	56.67	189	52.50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백과사전의 배열 순서를 알고 있는 학생은 남학생이 65명(약36%), 여학생이 61명(약34%)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었다. 또 배열방법을 알고 있는 전체 126명은 「다-1」항에서 백과사전에 접근할 수 있었던 139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다.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과사전을 보려고 해도 그 내용의 배열법을 몰라서 자칫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 참고도서예의 접근 수준을 8개 문항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다음 「표 다-9」는 그 종합적 결과를 보여준다.

〈표 다-9〉

문항 성별	응답	다-1 (명)	다-2	다-3	다-4	다-5	다-6	다-7	다-8	계		
										총합계 (명)	평균 (명)	비율 (%)
남학생	맞음	72	75	139	127	110	147	128	65	863	108	60
	틀림	93	86	25	45	52	25	37	0	363	45	25
	모름	8	12	12	7	14	5	12	28	98	12	6.67
	무응답	7	7	4	1	4	3	3	87	116	15	8.33
여학생	맞음	67	84	142	147	109	138	134	61	882	111	61.67
	틀림	77	69	24	29	45	26	29	0	299	37	20.55
	모름	25	23	13	4	22	11	14	17	129	16	8.89
	무응답	11	4	1	0	4	5	3	102	130	16	8.89
계	맞음	139	159	281	274	219	285	262	126	1,745	218	60.55
	틀림	170	155	49	74	97	51	66	0	662	83	23.06
	모름	33	35	25	11	36	16	26	45	227	28	7.78
	무응답	18	11	5	1	8	8	6	189	246	31	8.61

각종 참고도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남학생의 경우 108명(60%)이었으며, 여학생은 그보다 조금 나은 111명(약62%)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61%의 학생들이 참고도서의 용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틀렸거나, 모르거나,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은 결국 참고도서의 이용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이 40%나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적어도 10~11년을 교육받은 학생들의 거의 반수가 가장 기본적인 참고도서군을 이해할 줄 모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방법을 다시 검토하고 개선책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라) 책의 구성과 그 역할에 관한 이해능력

책은 보통 표제지, 목차, 머리말, 색인, 관련지등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책의 구성과 각 부분의 역할을 알고 있다면 자료의 검색과정에서 좀 더 빨리 필요, 불필요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책의 구성에 대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있는지를 3문항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각 문항마다 모르면서 올바른 답을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기에 모르겠다는 항을 첨가하였다. 「라-1」항은 목차, 혹은 머리말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목차는 도서의 개요로서의 구실을 하고 머리말 역시 그 도서를 집필한 사유, 대상자, 서술 순위등이 밝혀져 있으므로 본문을 읽지 않고도 그 책이 원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응답한 결과는 「표라-1」과 같이 나타났다.

<표 라-1>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비율 (%)	비율 (%)				
그 책이 원하는 내용의 것인지 아닌지를 전부 읽지 않고 빨리 결정하려면?		목차 혹은 머리말	128	71.11	136	75.55	264	73.33
		그 이외의 것	33	18.33	22	12.22	55	15.28
		모름	13	7.22	19	10.56	32	8.89
		무응답	6	3.34	3	1.67	9	2.50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목차 혹은 머리말의 역할을 알고있는 학생들은 모두 264명으로 73%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약간 나은 상태였지만 전체적으로 96명이나 가장 간단한 도서의 구성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 「라-2」항은 표제

지(標題紙) 혹은 판권지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표제지는 책의 앞 부분에 있고 책을 손에 들면 누구나 이 표제지를 넘기게 될 것이므로 쉽게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었으나 응답의 결과는 표「라-2」와 같이 의외로 저조하였다.

〈표라-2〉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	계	비율
				(%)		(%)		(%)
책의 저자를 알려면?		표제지 혹은 판권지	109	60.55	105	58.33	214	59.45
		그 이외의 것	49	27.23	59	32.78	108	30.00
		모름	15	8.33	15	8.33	30	8.33
		무응답	7	3.89	1	0.56	8	2.22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의 저자를 알기 위해 표제지나 판권지를 보겠다는 학생은 남학생 109명, 여학생 105명으로 전체의 59%에 해당되는 214명만이 바르게 응답하였다. 실제로 책에 접근하였을 때 저자를 알아내지 못할 학생은 없을 것이지만 표제지 혹은 판권지라는 책의 부분에 대한 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라-3」항은 색인의 역할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결과는 표「라-3」과 같다.

〈표라-3〉

문항	구분	응답	남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	계	비율
				(%)		(%)		(%)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특수한 용어 를 빨리 찾으려면?		색인	61	33.89	60	34.33	121	33.61
		그 이외의 것	85	47.22	89	49.45	174	48.33
		모름	27	15.00	25	13.89	52	14.45
		무응답	7	3.89	6	3.33	13	3.61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색인에 대해 알고있는 학생은 책의 구성부분에 대한 위의 어떤 조사에서 보다도 나쁜 상태로 나타났다. 즉 121명만이 올바른 응답을 하여 전체 학생의 약 34%만이 색인을 이해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색인의 역할을 알고 있으면 찾고자하는 사항을 빨리 알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적다는 것은 고려할 문제이다. 이상에서 책의 구성과 그 역할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그 종합적 결과는 표「라-4」와 같다.

〈표라-4〉

문항 성별	응답	라-1	라-2	라-3	계		
					총합계(명)	평균(명)	비율(%)
남 학 생	맞 음	128	109	61	298	99	55.19
	틀 립	33	49	85	167	56	31.11
	모 립	13	15	27	55	18	10.19
	무응답	6	7	7	20	7	3.89
여 학 생	맞 음	136	105	60	301	100	55.55
	틀 립	22	59	89	170	57	31.67
	모 립	19	15	25	59	20	11.11
	무응답	3	1	6	10	3	1.67
계	맞 음	264	214	121	599	200	55.56
	틀 립	55	108	174	337	112	31.11
	모 립	32	30	52	114	38	10.55
	무응답	9	8	13	30	10	27.78

여기서 보면 책의 구성과 그 역할을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반이 약간 넘는 200명 정도(55.6%)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약간 나은 상태이다.

(매) 주석, 인용문의 주기법에 관한 이해능력

고등학생이라면 교과 수업시간에 과제로서 어떤 사항을 조사하여 레포트로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때 참고로한 인용문의 출처를 밝혀주어야 한다. 「마-1」항에서는 이러한 참고 도서의 주기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마-1」과 같이 나타났다.

〈표마-1〉

질문	구분	응답	남학생		여학생		계	비율 (%)
			수	비율 (%)	수	비율 (%)		
참고도서주기법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5	2.78	6	3.33	11	3.06
	대강 안다		23	12.78	6	3.33	29	8.06
	모르고 있다		126	70.00	155	86.11	281	78.05
	무응답		26	14.44	13	7.23	39	10.83
	계		180	100.00	180	100.00	360	1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참고 문헌 주기법을 모르고 있다는 학생들은 전체의 78%인 281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126명, 여학생이 155명이고 이 같은 간단한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것으로 간주하면 152명의 남학생과 168명의 여학생들이 간단한 참고 문헌 주기법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도서관 이용교육에 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이해능력을 조사한후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분류법에 관한 이해능력

(1) 십진분류법에 관하여 들은 경험이 있다고 한 학생들은 전체의 42%에

머무르고 있다.

(2) 십진분류번호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학생은 전체의 4.7%, 대강 알고 있다는 학생은 약 28.9%로 약32%의 학생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3) 십진분류법에 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그 능력을 실제 도서관의 자료를 찾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는 학생은 분류번호의 의미를 대강 알고 있었다는 학생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였다.

(4) 십진법류법의 실제적 이해능력을 테스트한 결과는 主類구분이나 要目구분 모두 3.6%의 극소수 학생들만 이해하고 있었다.

(5) 십진분류법을 알고, 모르는것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약66%)이 십진분류법을 알고싶어 하였다.

나. 목록카드에 관한 이해능력

(1) 목록카드에 관하여 들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94%이고 목록카드를 본 경험은 전체의 83%에 이르러 목록카드를 듣거나 본 경험은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갖고 있었다.

(2) 목록카드를 실제 책을 찾는 방편으로 이용하였던 학생은 전체의 41%로 듣거나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약 절반만이 목록카드를 찾아보는 능동성을 보였다.

(3) 목록카드를 찾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저자명 목록을 찾는 능력은 전체의 29%에 해당되는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었다.

(4) 목록카드에 관하여 알고 싶다는 반응은 전체의 68%였다.

다. 참고도서에 관한 이해능력

(1) 백과사전을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39%였지만 실제 백과사전을 찾을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인 내용배열순을 이해하는 학생은 그보다 적은 35%였다.

(2) 도감을 알고있는 학생은 전체의 44%, 인명사전은 78%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고, 언어사전은 전체의 76%, 문학사전은 61%의 학생들이 알고 있었다. 연감을 알고있는 학생은 10.5%, 통계표는 그보다 많은 68.6%였다. 지명사전은 72.7%의 학생들이 알고있어 결국 인명사전, 언어사전, 지명사전을 비교적 많은(70%이상) 학생들이 알고 있었고 모든 주제를 포괄

적으로 다루고 있어 이용할 경우가 많은 백과사전을 오히려 잘 모르는 상태였다.

(3) 각종 참고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능력은 61%의 학생들이 갖고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라. 책의 구성에 관한 이해능력

(1) 목차나 머리말의 역할을 알고 이용할 수 있었던 학생은 전체의 73%였고 표제지 혹은 판권지를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59%였다. 그러나 색인을 알고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그보다 훨씬 적어 약 33%에 그쳤다.

(2) 책의 구성과 각 부분의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능력은 약 55.6%의 학생들이 지니고 있었다.

마. 참고문헌의 주기법에 대한 이해능력

(1) 극히 적은(전체의 약 3%) 학생들만이 참고문헌의 주기법을 알고 있었다. 대강 알고 있다는 반응도 8%뿐으로 과연 고등학교 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해 보았는지 의심이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의 검색능력, 참고도서의 이해능력, 레포트 작성능력이 밝혀졌으므로 그 보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연구자들을 위하여 이용교육의 방법-학점, 시간배당, 과목명칭, 실시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것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1. 김 동국, “도서관 이용지도 자료의 개발과 활용이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국민학교 고학년울 중심으로” 도협월보 17,3 (1976.4)
2. 김 두홍, “학교 도서관편,” 전국도서관 실태조사-학교도서관편, 특수도서관편, 도서관학 교육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3. 나 성실, 대학교육 과정에 있어서 도서관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2)
4. 신 숙원, “도서관과 문헌 이용지도-대학 정규과목으로서의 필요성” 도협월보 18, 1 (1977, 1. 2)

5. 안 영주, 한국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의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1965)
6. 유 소영, “서울 국제학교 도서관” 도협월보 19, 2 (1978. 3)
7. 정 필모역, 도서관 및 문헌 이용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8. 정 태숙, “대학도서관 이용지도의 방법” 한국 비블리아, 제 3 집 (1978)
9. 한국도서관 통계 1977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7)
10. Fjällbrant, Nancy, “Evaluation in a User Education Programme”, *Journal of Librarianship*, 9 (2) (April, 1977)
11. *The Macmillan English Series* 6, 2nd ed.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63)
12. Martin, Lowell A. “User Studies and Library Planning” *Library Trends* 24 (January, 1976)

A Study on Library Use Competency of High School Students

Yoon—ok Han*

< Abstract >

This has been designed for an attempt to survey a library use competency in order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plan more effective library use instruc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To get necessary data, a questionnaire was sent to 450 students in the 7 sample high schools in Seoul, and 80% of them responded.

The followings are the analysed results.

1. 42% of them responded that they have heard about the decimal classification and 15% of all the students have ever used decimal classification to search for the materials.
2. 3.6% responded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decimal classification and 66% of all the students want to know about decimal classification.
3. 94% responded that they have heard about the catalog cards and 41% of all the students used catalog cards to search for the materials.
4. 29% responded that they can understand the catalog cards and 68% of all the students want to know about the catalog cards.
5. 61% responded that they can use reference books.
6. 55.6% responded that they know about the parts of a book.
7. 11% responded that they can footnote.

Review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library use competency of high school students can be said to be below level. And more effective approach is expected.

* Teacher Librarian in Hong Ik Girls' High School.